

제 7 회
다카쓰키시인권의식조사
보고서

개 요 판

레이와 2 년(2020 년)3 월

다카쓰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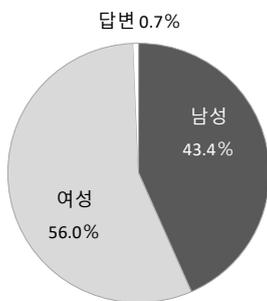
조사목적과 개요

조사 목적	
다카쓰키시민의 인권문제의식에 관한 현재상황, 경향과 과제를 파악하고, 인권의식의 추세와 계 발교육 효과를 분석하여, 「다카쓰키시인권시책추진기획」(평성 27 년 3 월책 정)의 차기기획을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.	
조사 기간	
레이와원년 9 월 30 일~10 월 25 일	
조사 대상	
레이와원년 8 월말 현재, 다카쓰키시에 거주하는 만 16 세이상의 외국국적시민을 포함한 남녀 3,100 명	
조사대상의 추출방법	
주민기본대장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. 또한, 젊은세대의 의식분석에 필요한 회수수를 얻기 위해, 연령구성별 설치수중의 10 대 및 20 대에 대해 추가추출를 했습니다.	
조사방법	
우송으로 배부및 회수작업을 했습니다.	
조사항목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권에 대한 의식및 관점, 학습경험등에 대해 · 타인이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거나, 받은 경험에 대해 ·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에 대해 · 외국국적시민의 인권에 관한 경험과 의견에 대해 · 회답자의 속성에 대해 	
조사표의 발부와 회수상황	
발부수	3,100 건 (도달수 : 3,092 【A】)
회수수	989 건 【B】
회수율 【B】 ÷ 【A】	32.0%
전화 조사	
평성 2 5 년 1 0 월	

※본조사에서 「동화지구」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, 동화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과 인권계발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, 국가 특별조치법(평성 14 년 3 월실효)에서 지정된 대상지역을 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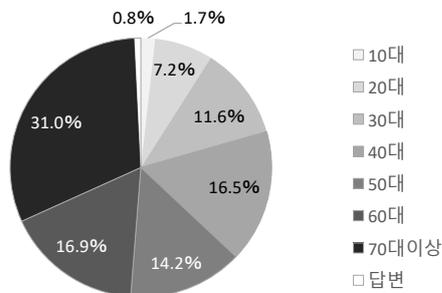
※배부수등에는 젊은 세대층의 추가추출부분을 포함합니다. 또한 추가추출부분은 연령별 분석에만 포함하여 집계하였으며, 전체집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【회답자의 성별】



(회답수 = 9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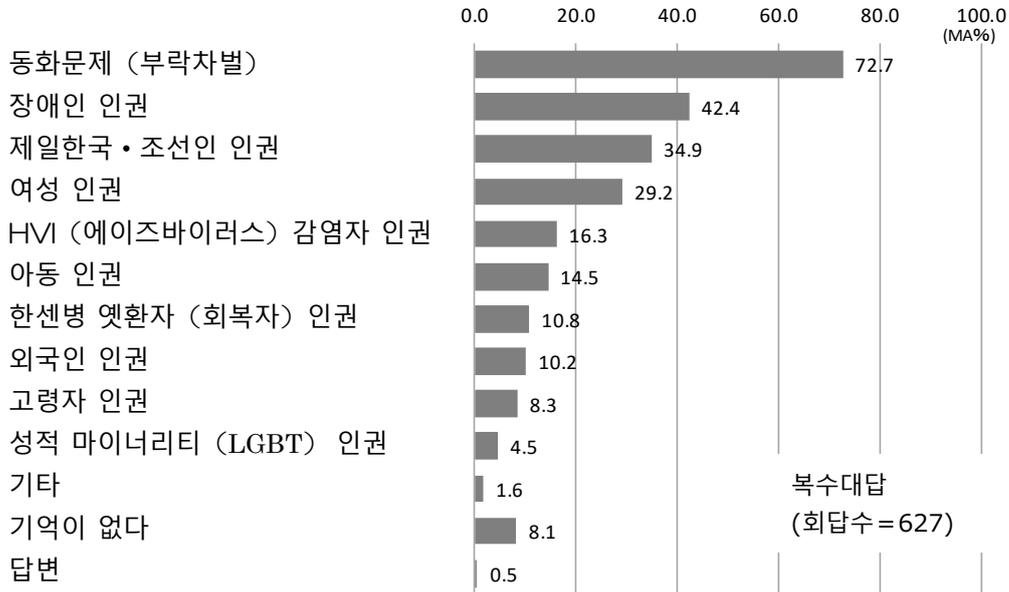
【회답자의 연령】



(회답수 = 915)

인권에 대한 의식과 관점, 학습경험등에 대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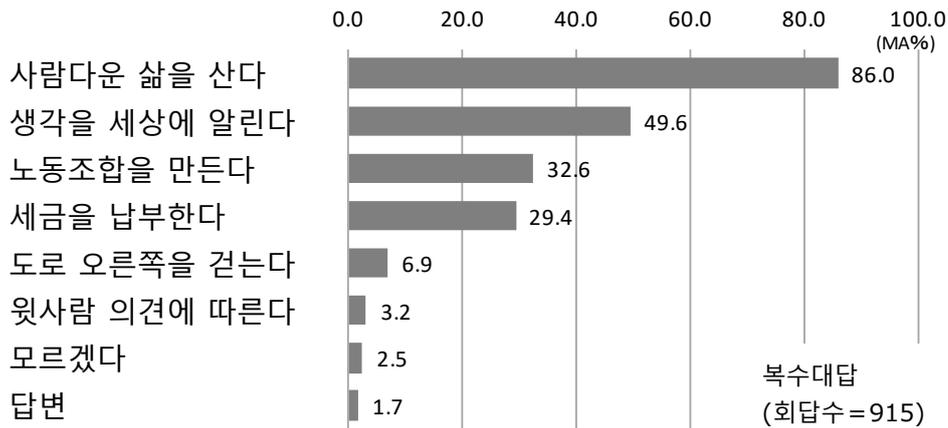
● 소학교부터 고교까지 받은 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내용 ●



고교까지의 교육에서 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, 「있다」가 68.5%를 차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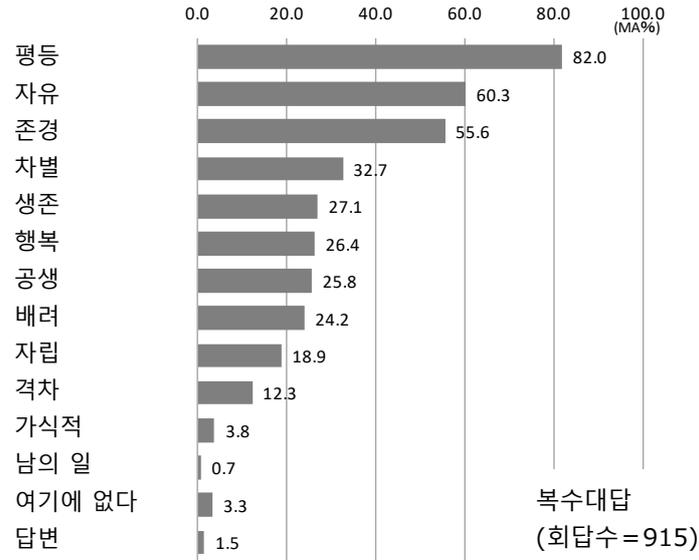
그 중에서, 교육내용이, 「동화문제(부락차별)」가 72.7%으로 제일 비율이 높으며, 그 다음으로 「장애인 인권」이 42.4%, 「제일한국 · 조선인 인권」이 34.9%입니다.

● 헌법에 의해, 국민의 권리로 정해져 있는 것들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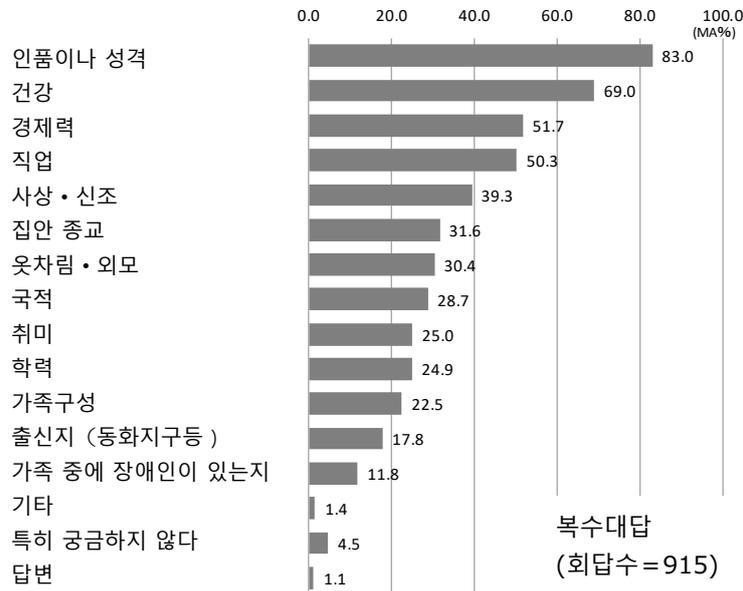
「사람다운 삶을 산다」의 86.0%가 제일 높으며, 그 다음으로 「생각을 세상에 알린다」가 49.6% 차지합니다.

● 「인권」이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것들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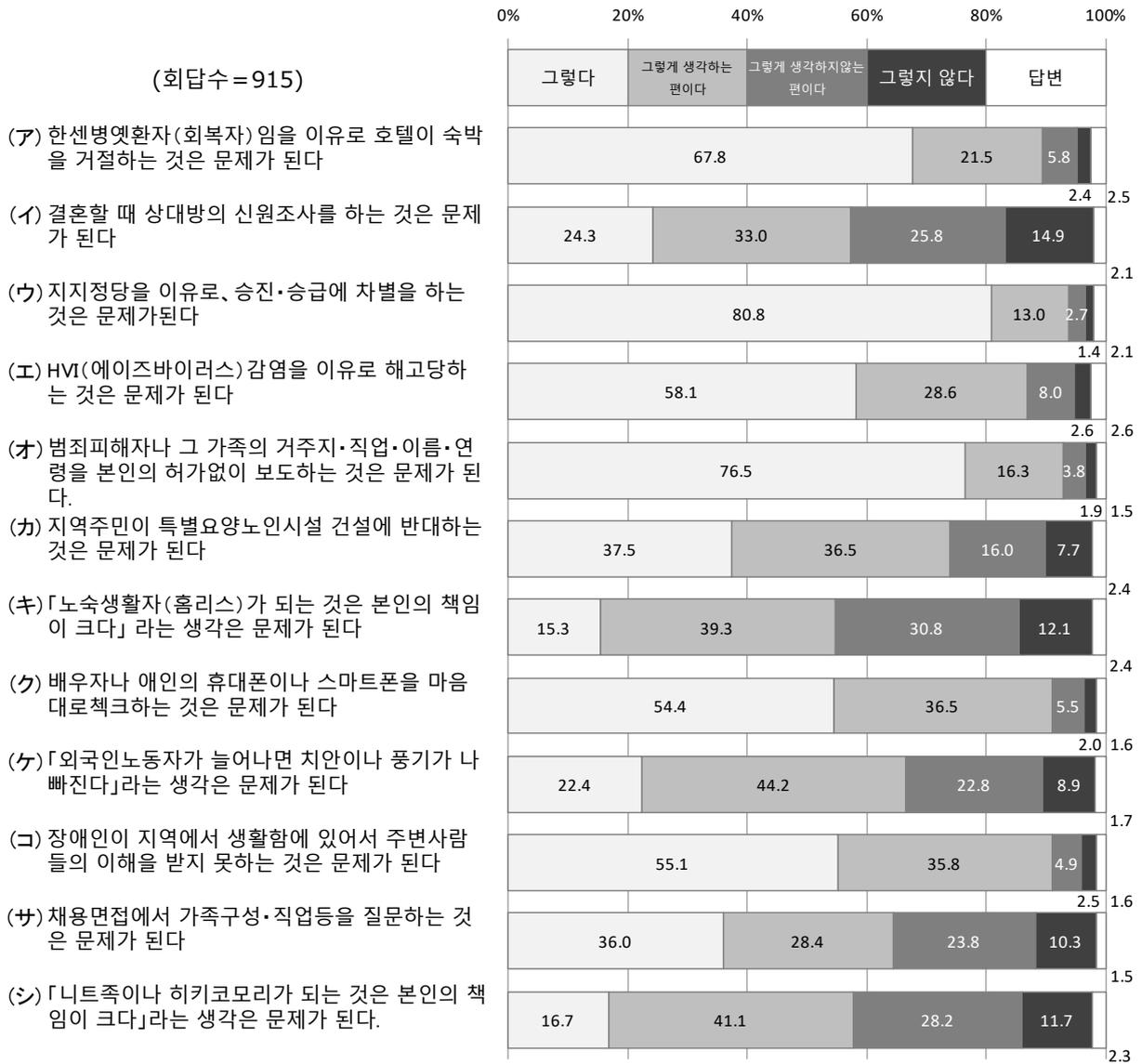
「평등」이 82.0%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 「자유」가 60.3%、「존경」이 55.6% 차지합니다.

● 본인 또는 가족이 결혼등 파트너를 선택할 때,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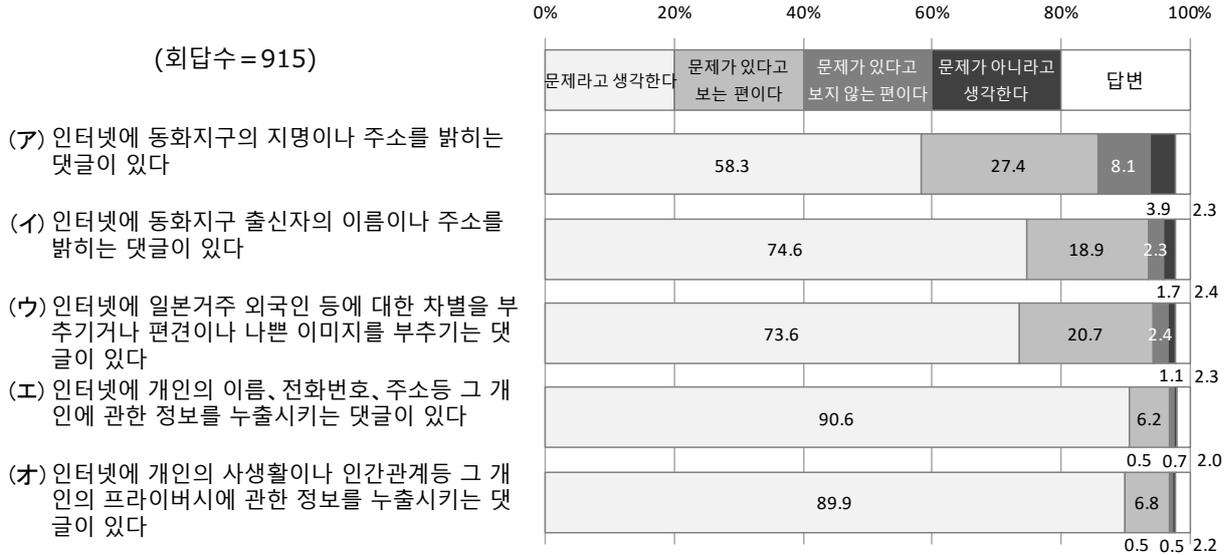
「인품이나 성격」이 83.0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,「건강」이 69.0%, 「경제력」이 51.7% 차지합니다.

● 각종 인권문제에 관한 문제의식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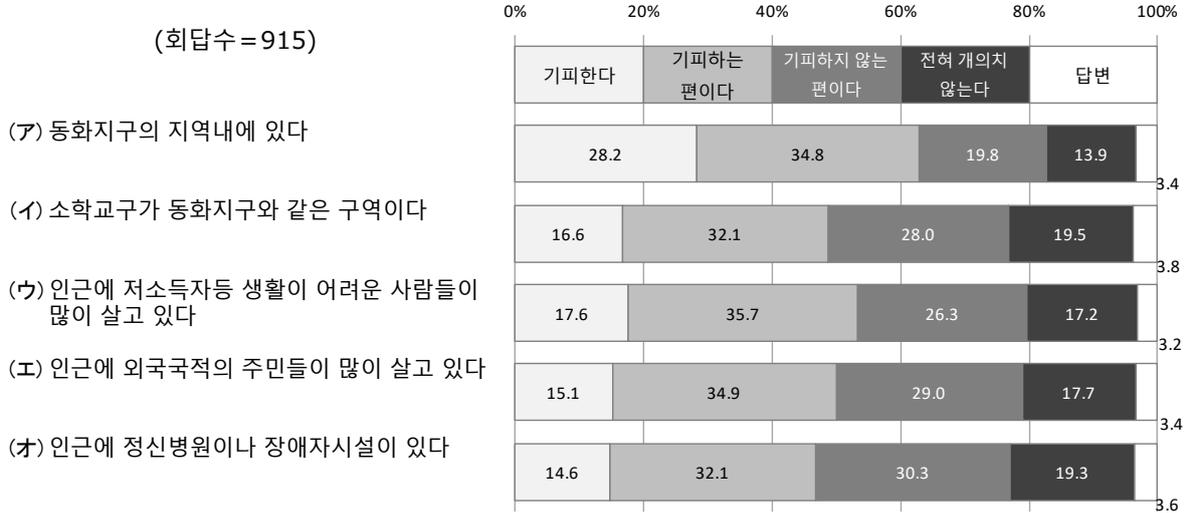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, 「(ウ) 지지정당을 이유로, 승진·승급에 차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」로, 93.8%에 달하며, 그 다음으로, 「(オ)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·직업·이름·연령을 본인의 허가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」가 92.8%、그리고 그리고 「(ク) 배우자나 애인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체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」 및 「(コ)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 함에 있어서 주변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」가 90.9% 차지합니다.

● 휴대폰이나 스마트폰, 컴퓨터 등 인터넷에 관한 문제의식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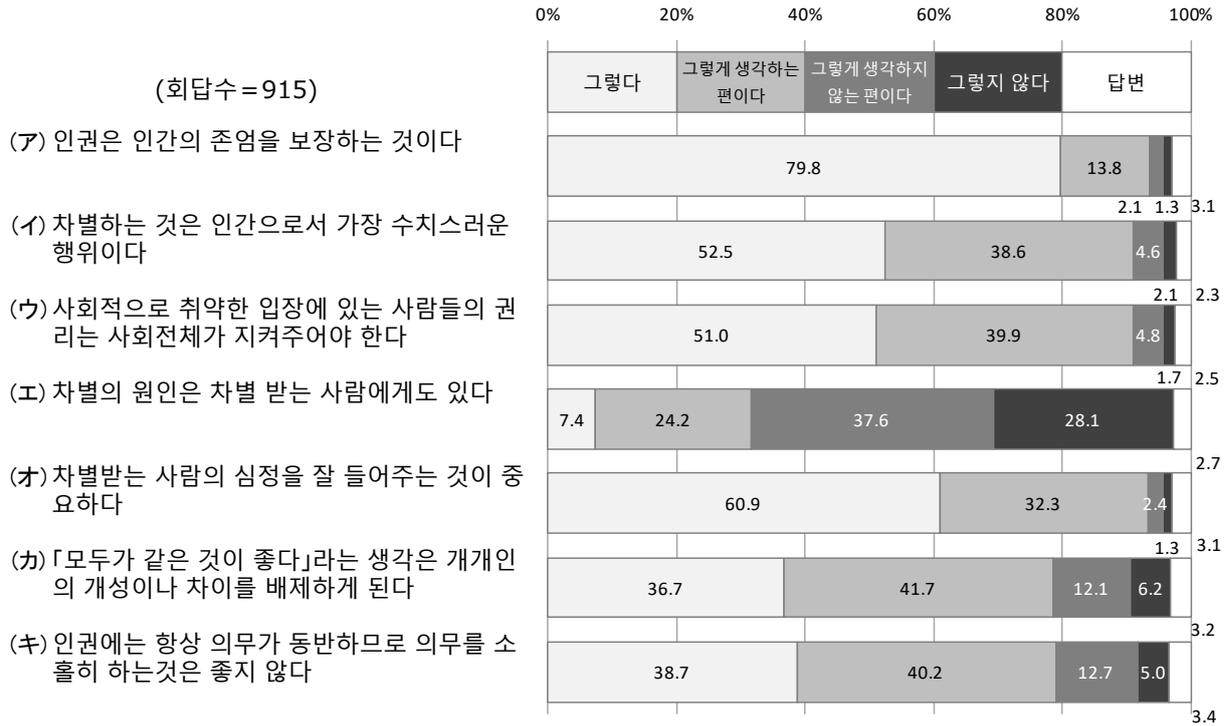
인터넷 댓글에 대해서, 전체적으로 「문제라고 생각한다」「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다」의 합계가 80%이상을 차지합니다.

● 거주지 조건에 대해 ●



「기피한다」「기피하는 편이다」의 합계가 가장 높은 것이, 「(ㄱ) 동화지구의 지역내에 있다」이며, 63.0% 차지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, 「(ㄷ) 인근에 저소득자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」가 53.3% 차지합니다.

● 「인권」이나 「차별」에 관한 문제의식 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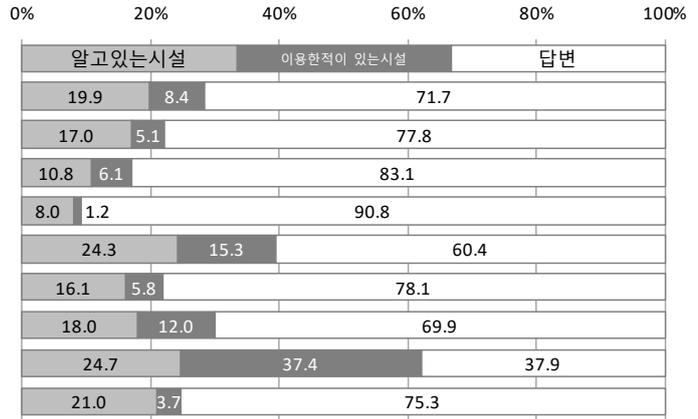

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가 가장 높은 것이, 「(ㄱ)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」이며, 93.6% 차지하며, 그 다음으로, 「(ㅁ) 차별받는 사람의 심정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」가 93.2% 차지합니다.

● 인권에 관한 계발활동이나 각종 강좌, 상담등을 진행하는 시내 시설에 대한 인지도 ●

(회답수 = 915)

- (ア) 돈다후레아이문화센터
- (イ) 돈다청소년교류센터
- (ウ) 가스가후레아이문화센터 · 가스가청소년교류센터
- (エ) 인권 · 문화계발코너
- (オ) 남여공동참획센터 (크로스팔다카쓰키)
- (カ) 장애자복지센터 (유 · 아이센터)
- (キ) 육아종합지원센터 (캥거루의 숲)
- (ク) 시내각비구의 공민관 · 커뮤니티센터
- (ケ) 가카쓰키어린이미래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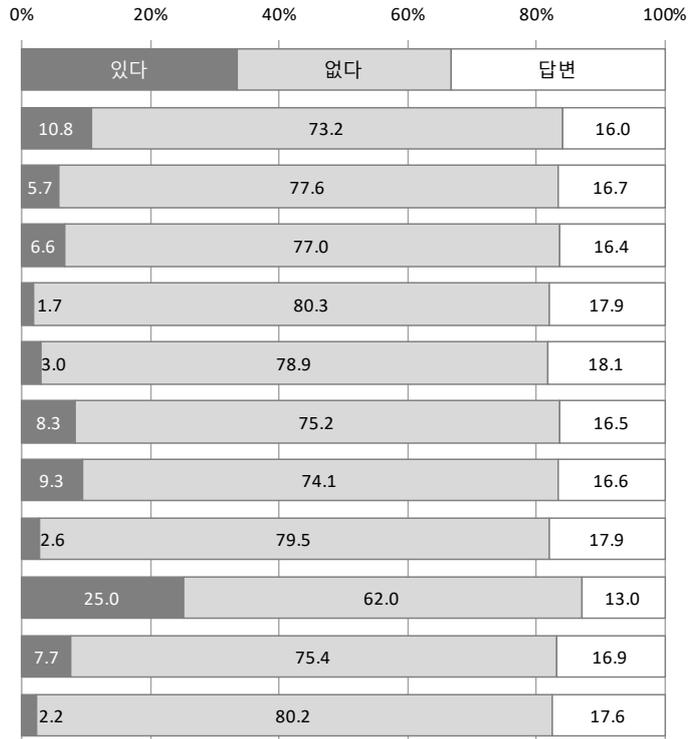


인지도는「(ク) 시내각비구의 공민관 · 커뮤니티센터」가 62.1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「(オ) 남여공동참획센터 (크로스팔다카쓰키)」가 39.6%、「(キ) 육아종합지원센터 (캥거루의 숲)」이 30.0% 차지합니다.

● 시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강연등에 대한 인지 · 이용상황등 ●

(회답수 = 9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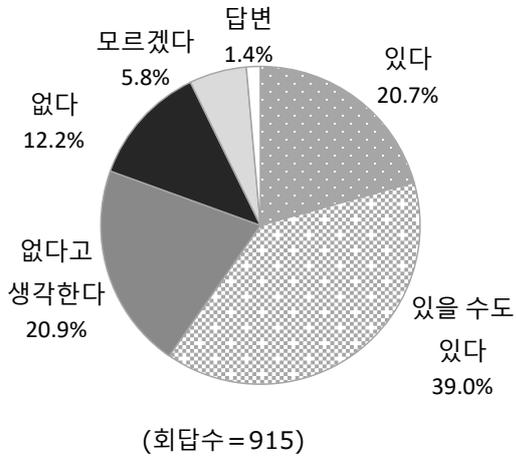
- (ア) 평화전
- (イ) 인권을 생각하는 시민 모임
- (ウ) 공민관에서 열린 인권강좌
- (エ) 마음의 풍요로움을 찾아서
- (オ) 인권버라이어티세미나
- (カ) 복직관
- (キ) 시민후레아이운동회
- (ク) 다카쓰키시인권사회조성협회의 지구별사업
- (ケ) 「다카쓰키DAYS (코호다카쓰키)」에 게재된 인권특집
- (コ) 인권에 관한 표어, 작문, 회화의 모집 · 표창
- (サ) 인권110번 (인권상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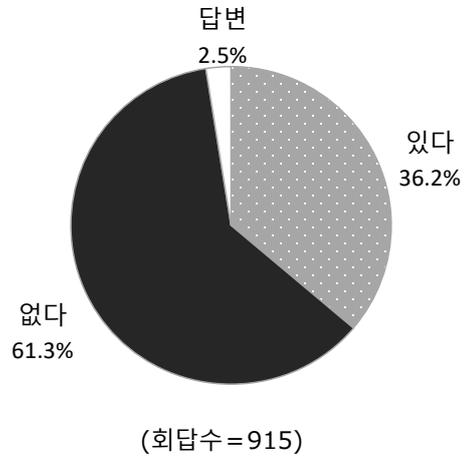
보았다 · 이용했다 · 참가한 적이 「있다」항목에서,「(케) 「다카쓰키 DAYS (코호다카쓰키)」에 게재된 인권특집」이 25.0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는,「(아) 평화전」이 10.8%、「(키) 시민후레아이운동회」가 9.3% 차지합니다. 모든 항목에서 「없다」가 60%이상을 차지합니다.

타인이 싫어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했거나, 받은 경험에 대해

●가해 경험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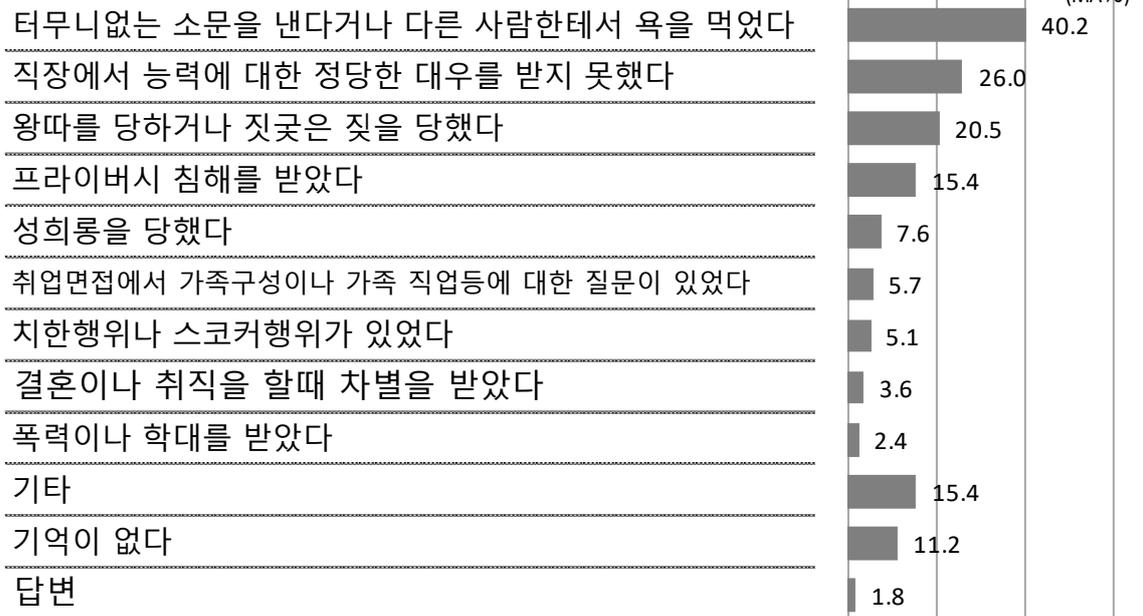


●피해 경험●



●받은 불쾌함이나 불이익의 언행 내용●

복수대답 (회답수 = 33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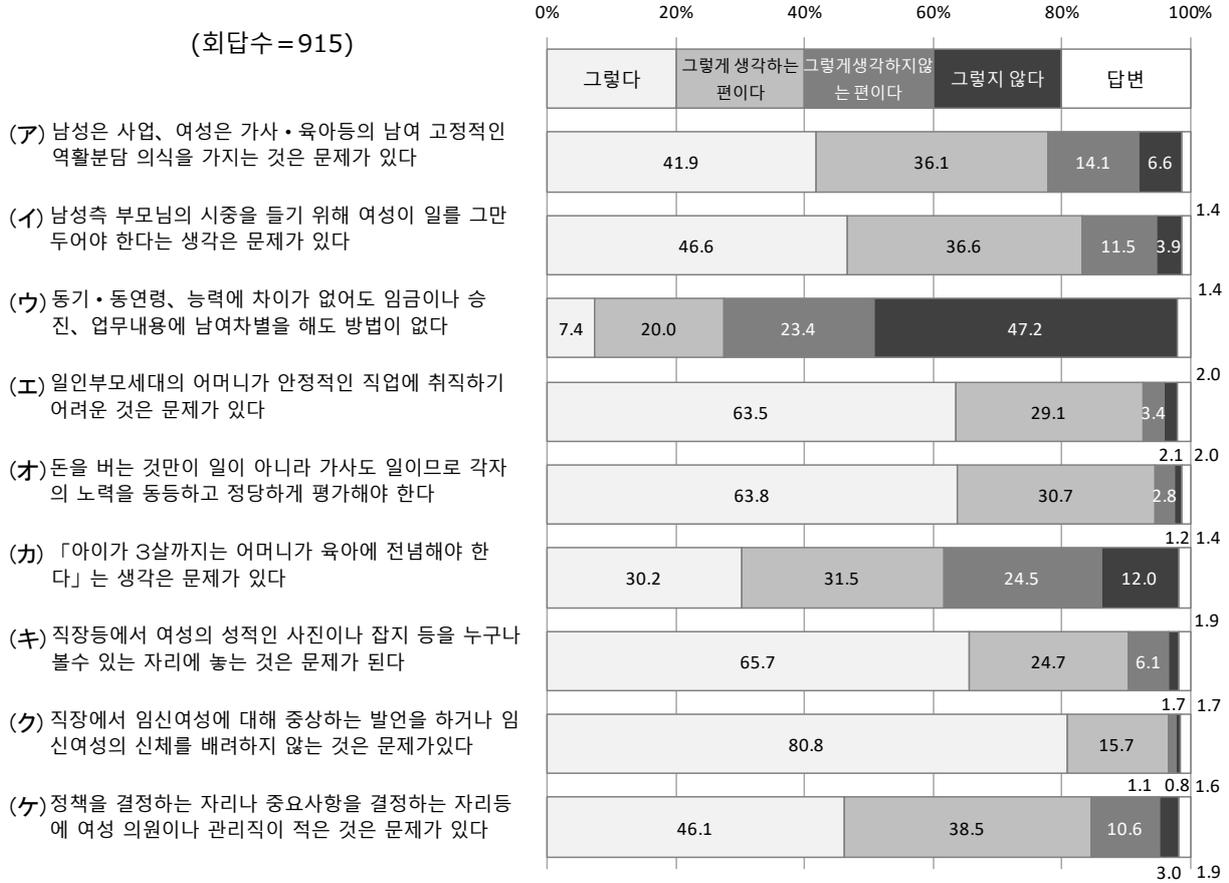
최근 5 년간에 타인으로부터 불쾌함이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「있다」는 대답이 36.2% 차지합니다.

그 중에서, 「터무니없는 소문을 낸다거나 다른 사람한테서 욕을 먹었다」가 40.2%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「직장에서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」가 26.0%,「왕따를 당하거나 짓궂은 짓을 당했다」가 20.5% 차지합니다.

다양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에 대하여

●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 ●

(회답수 = 9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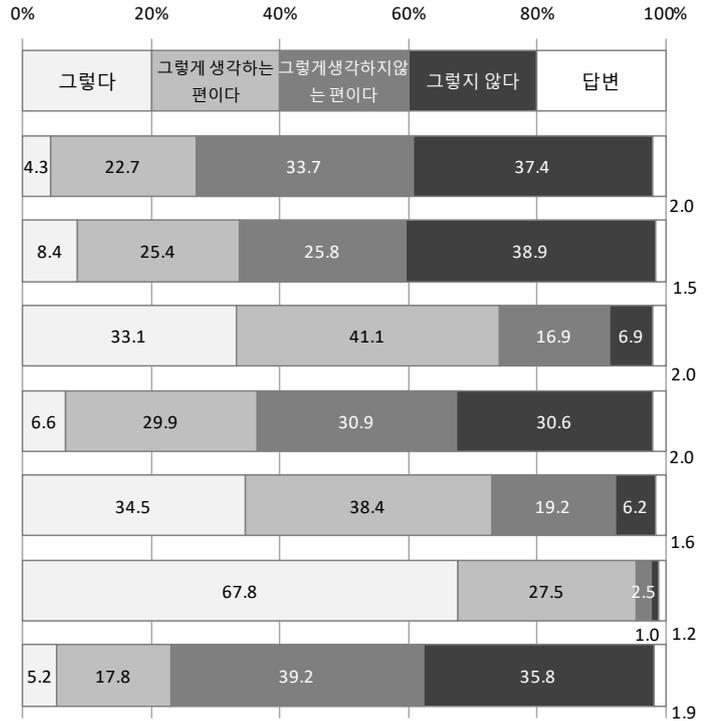

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, 「(ㄱ) 직장에서 임신여성에 대해 중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임신여성의 신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」로, 96.5%에 달하며, 그 다음으로 「(ㄹ) 돈을 버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가사도 일이므로 각자의 노력을 동등하고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」가 94.5%、「(ㄱ) 일인부모세대의 어머니가 안정적인 직업에 취직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다」가 92.6% 차지합니다.

● 어린이 인권에 관한 의식 ●

(회답수=915)

- (㉞) 왕따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다
- (㉟) 교사가 어린이를 지도할 때 때로는 체벌이 필요하다
- (㊱) 학교 규칙을 정할때 어린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
- (㊲) 보호자가 아이교육을 위해 체벌을 가해도 어쩔 수 없다
- (㊳) 보호자가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편이나 일기, 매일등을 몰래 보지않는 것이 좋다
- (㊴) 어린이도 일명의 인간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
- (㊵) 등교거부는 본인이 노력하면 극복할수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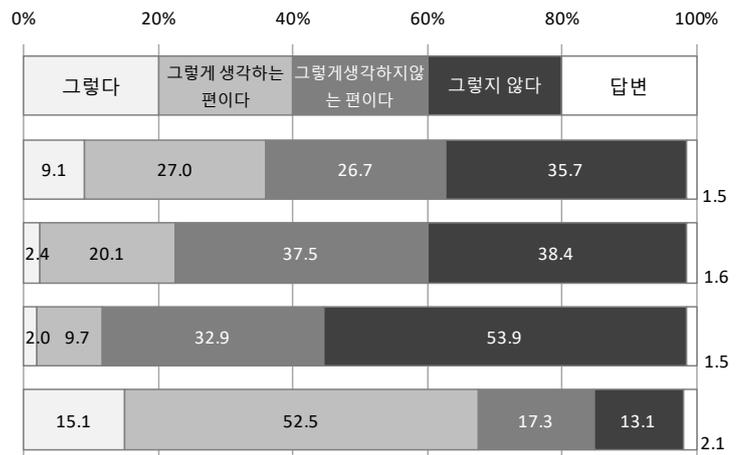

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, 「(㊴) 어린이도 일명의 인간으로서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」이며, 95.3%에 달하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 「(㊱) 학교 규칙을 정할때 어린이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」가 74.2%에 달합니다.

● 고령자 인권에 관한 의식 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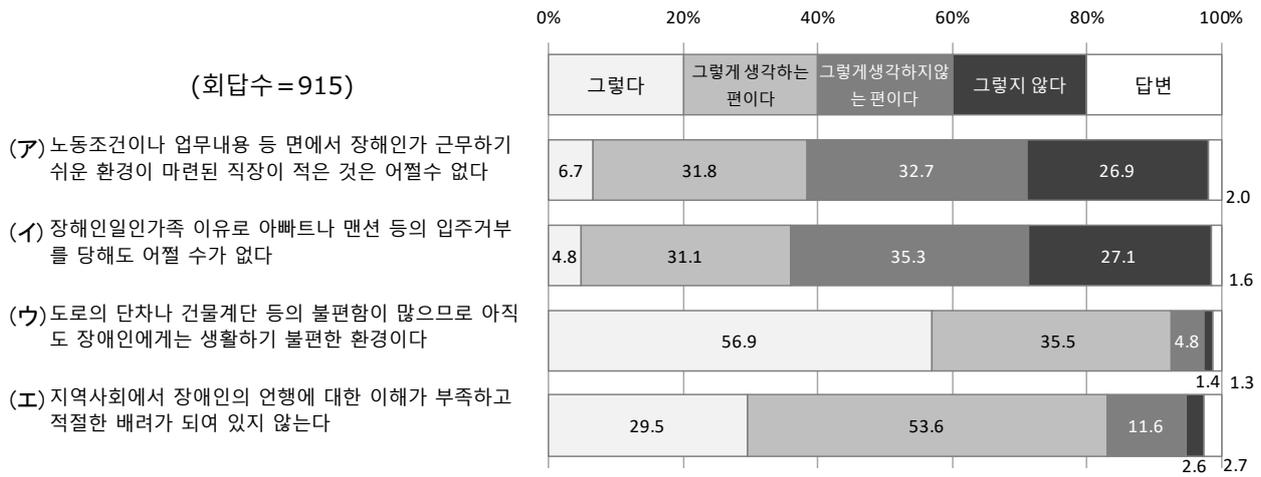
(회답수=915)

- (㉞) 악덕상법이나 사기도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은 고령자의 부주의 탓이다
- (㉟) 고령자가 일인가족 이유로 아파트나 맨션 등의 입주거부를 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
- (㊱) 복지시설등의 직원이 고령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원인이 있다
- (㊲) 치매증을 이유로 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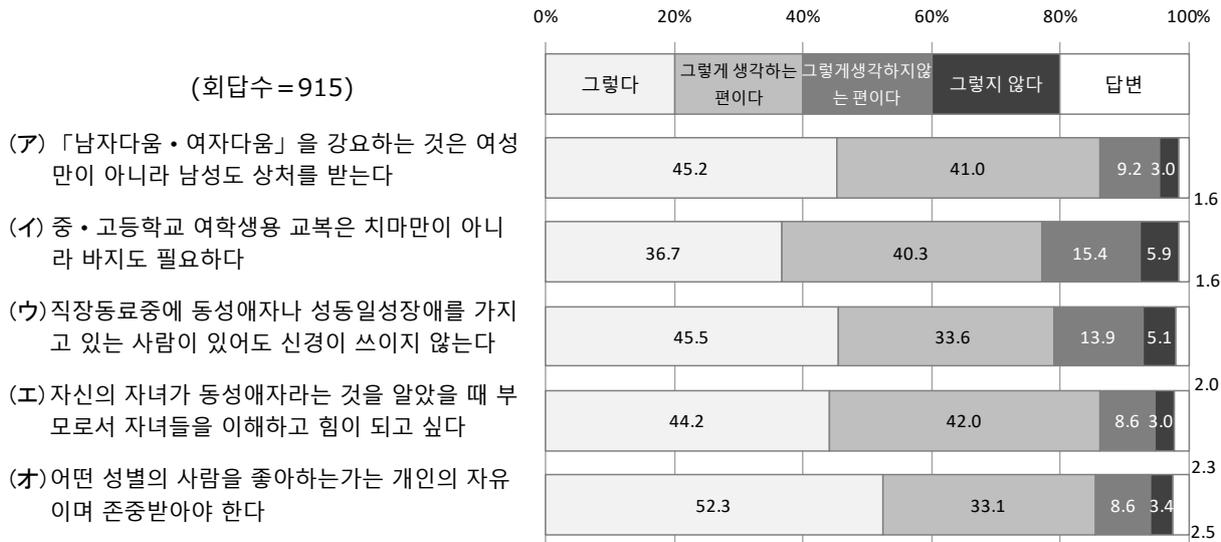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, 「(㊲) 치매증을 이유로 가정이나 복지시설에서 행동의 제한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」가 67.6%를 차지합니다.

●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에 관한 의식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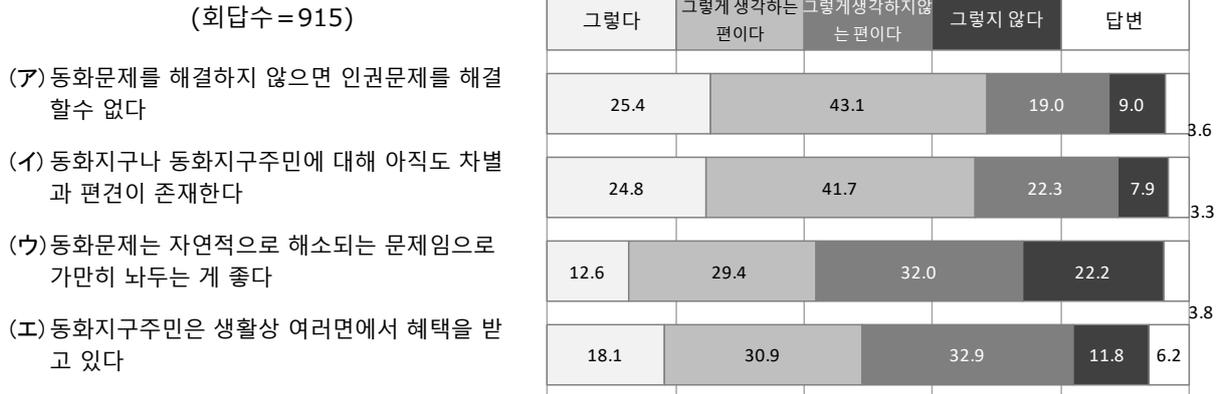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, 「(ㄷ) 도로의 단차나 건물계단 등의 불편함이 많으므로 아직도 장애인에게는 생활하기 불편한 환경이다」가 92.4% 차지합니다.

● 성에 관련된 인권의식에 관한 의식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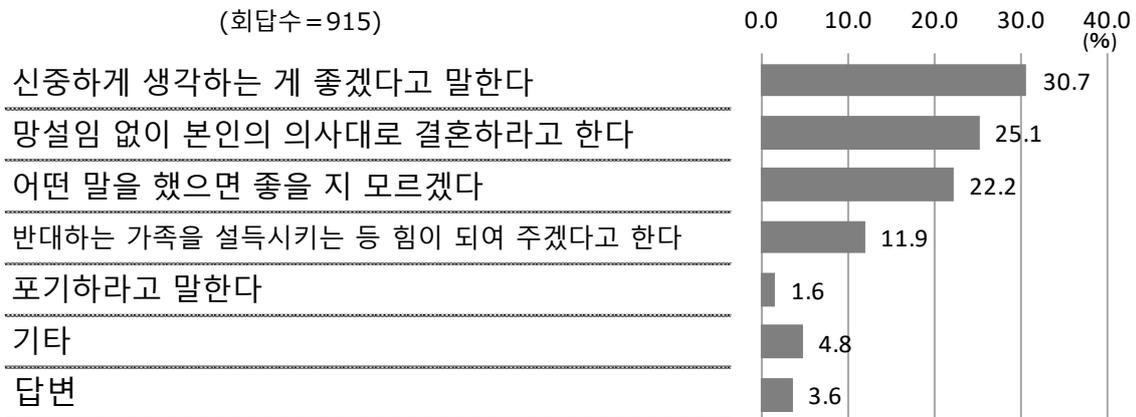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, 「(ㄱ) 「남자다움·여자다움」을 강요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상처를 받는다」와 「(ㄹ)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힘이 되고 싶다」이며, 86.2%에 달하고 있습니다. 모든 항목중에서 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가 70%이상을 차지합니다.

● 동화문제(부락차별)에 관한 의식 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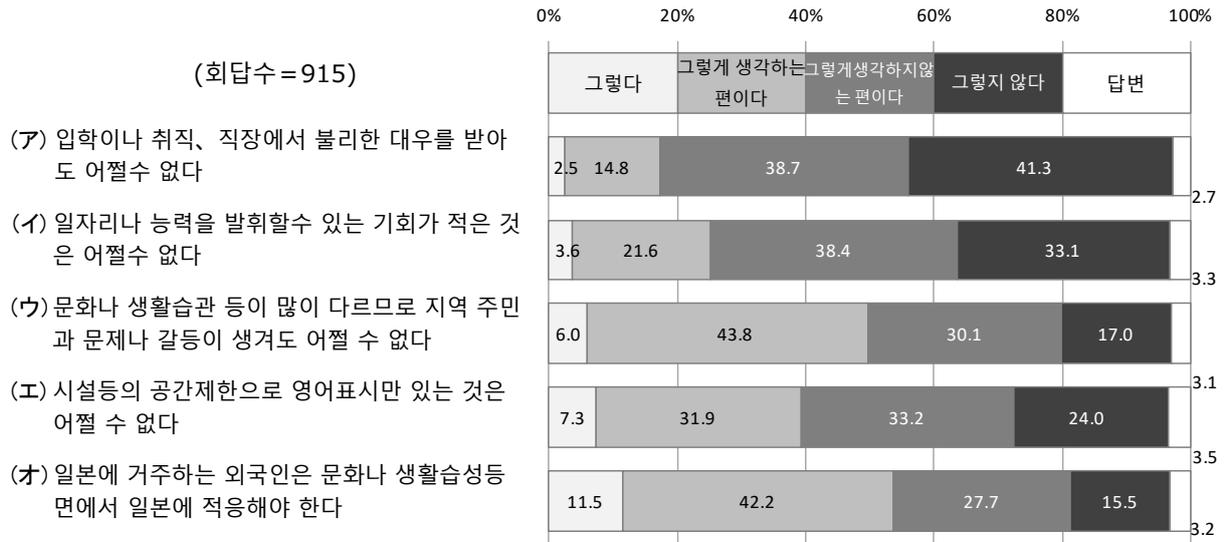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가 가장 높은것은, 「(ア) 동화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」로서, 68.5%를 차지하며, 그 다음으로 「(イ) 동화지구나 동화지구주민에 대해 아직도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」가 66.5%에 달하고 있습니다.

● 결혼상대에 대한 상담 ●



예를 들어, 자신의 친척 자식이 결혼하려는 상대가 동화지구 출신으로서, 이를 이유로 가족으로부터 결혼반대를 받고 있는 사실을, 상담받을 경우에, 「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」가 30.7% 차지하며, 가장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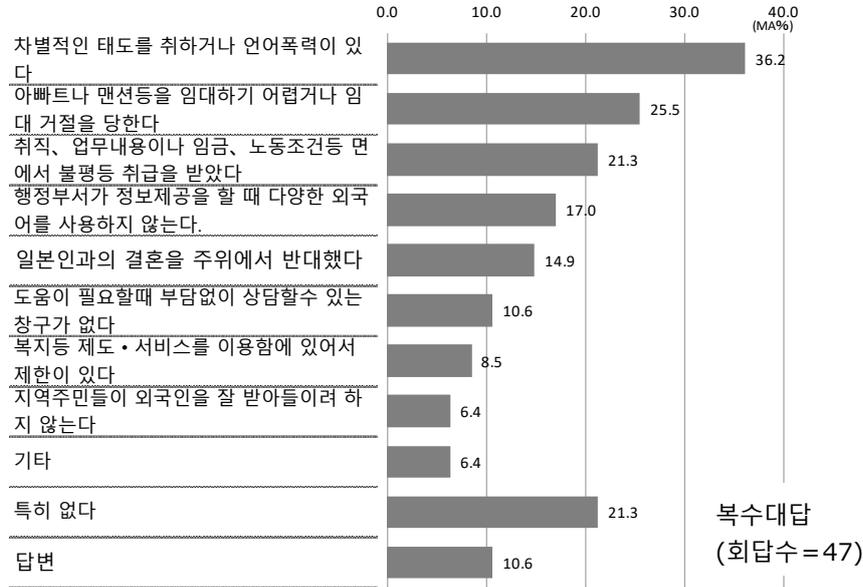
● 외국인 인권에 관한 의식 ●



「그렇다」「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」의 합계가 가장 높은것은, 「(才)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문화나 생활습성등 면에서 일본에 적응해야 한다」로서, 53.7%를 차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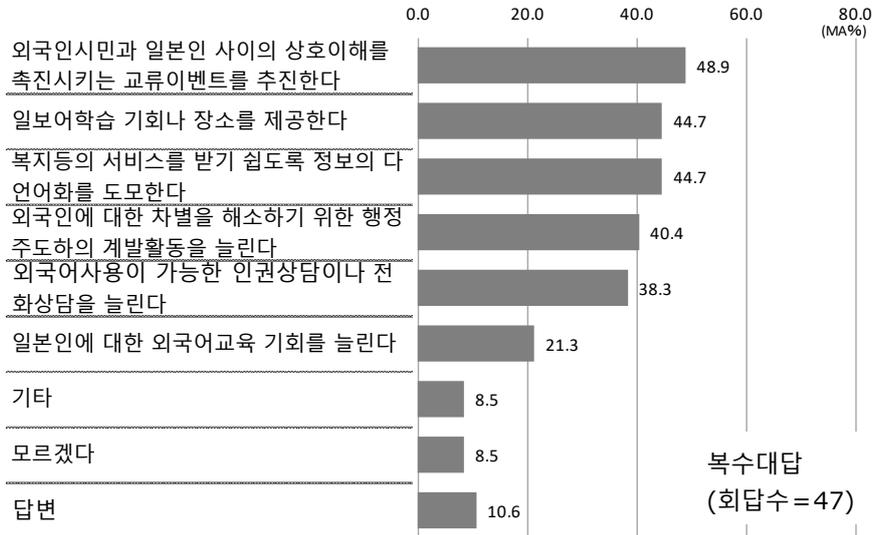
외국국적시민의 인권에 관한 경험과 의견에 대해

●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거나 느낀 점 ●



「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언어폭력이 있다」가 36.2%로서, 제일 높습니다.

● 외국인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 ●



「외국인시민과 일본인 사이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교류이벤트를 추진한다」가 48.9%로서 가장 높으며, 그 다음으로「일보어학습 기회나 장소를 제공한다」「복지등의 서비스를 받기 쉽도록 정보의 다언어화를 도모한다」가 44.7% 차지합니다.

각종 인권상담기관을 안내합니다

입직장이나 지역, 학교등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,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?
고민하는 분의 입장에서 상담을 드립니다. 상담내용은 그 어떤 소소한 일도 좋습니다.
비밀은 엄수함으로, 안심하고 상담하세요.

상담명칭	상담장소·전화번호	요일·시간	문의
人權全般			
인권 110번	시청본관 5층 인권·남녀공동참여과 072-674-7110	월~금요일 8:45~17:15	인권·남녀공동참여과 072-674-7575
인권특설상담 (인권옹호위원)	크로스팔다카쓰키 4층 072-685-3748	매월제 2토요일 14:00~16:00	
신변 복지상담 (あんしんねと あゆむ) (인권옹호위원)	다카쓰키한큐 6층 사회복지협의회 상담실	금요일 13:00~15:00 전화상담있음 (072-681-8739) 인권상담은,매월제 3금요일	생활종합상담센터 072-681-8719
신변복지· 생활상담 (CSW)		월요일 13:00~16:00	
걱정거리상담		수요일 13:00~15:00	
종합생활상담	돈다후레이아문화센터 072-694-5451	월~금요일 8:45~17:15 ※토요일은 9:00~12:00	돈다후레이아문화센터 072-694-5451
	가스가후레이아문화센터 072-671-9604	월~금요일 8:45~17:15 ※토요일은 9:00~12:00	가스가후레이아문화센터 072-671-9604
여성			
여성상담 (일반상담)	시청본관 5층 인권·남녀공동참여과 072-674-7593	화·금요일 (면담상담 예약필요) 9:30~16:30 (12:00~13:00 제외)	인권·남녀공동참여과 072-674-7575
배우자등으로부터 폭력 (DV) 상담 *남성도 포함	(예약필요) 예약전용전화 072-674-7689	예약접수시간 월~금요일 8:45~17:15	
아동			
아동가정상담	육아종합지원센터 072-686-5431	월~금요일 (면담상담예약필요) 9:00~17:15	육아종합지원센터 072-686-5431
아동과 가정에 관한 상담	오사카후스이타아동가정센 터 06-6389-3526	월~금요일 9:00~17:45	오사카후스이타아동가정센터 06-6389-3526
고령자			
고령자학대방지지원	복지상담지원과	월~금요일 8:45~17:15	복지상담지원과 072-674-7171
고령자종합상담	각지역포괄지원센터 시내 12개장소	월~금요일 9:00~17:00	복지상담지원과 072-674-7171
장애인			
장애인상담지원	각상담지원사업위탁사업소 시내 8개장소	요일·시간은 사업소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주십시오.	복지상담지원과 072-674-7171
장애인생활상담	장애인복지센터	월~금요일 (예약필요·수화통역 있음)	장애인복지센터 tel 072-672-0267 fax 072-661-3508
외국인 (영어, 중국어, 한국조선어, 포르투갈어, 스페인어, 베트남어, 필리핀어, 태국어, 인도네시아어, 네팔어, 일본어대응)			
오사카후외국인정보 코너 (생활정보상담 창구)	(공재) 오사타후국제교류 재단 (마이돔오사카 5층) 06-6941-2297	월,금요일 9:00~20:00 화·수·목 9:00~17:30 제 2, 제 4 일요일 13:00~17:00	(공재) 오사타후국제교류재단 06-6966-2400

※상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식합니다.

법무국전화전용상담

- 모든 이의 인권 110번 (전국공통)
다양한 인권문제 상담 TEL 0570-003-110
- 어린이 인권 110번 (전국공통무료전화)
왕따·학대등 어린이의 인권문제
TEL 0120-007-110
- 여성 인권 핫라인 (전국공통)
성희롱·가정내폭력등 여성인권문제
TEL 0570-070-810

<발행·문의>

☎ 569-0067
다카쓰키시모모조노초 2번 1호
다카쓰키시청 인권·남녀공동참여과
TEL 072-674-7575
FAX 072-674-7577